

영향 예보로의 전환을 통한 기상재해 리스크 경감

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2016. 7. 22.(금) 10:00 (총 8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대구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담당자	과장 최두수 장기예보관 시미정
		전화번호	053- 952-0366 070-7850-2223

3개월전망(2016년 8월~10월)

[기 온] 대체로 평년보다 높겠으며, 후반에는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음
[강수량] 8월과 9월에는 대체로 평년보다 많겠으나, 10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음

- (8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날이 많겠음.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과 대기불안정에 의해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 (9월) 전반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때가 많겠으며,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후반에는 점차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 (10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음.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엘니뇨/라니냐 전망) 현재 엘니뇨 감시 구역의 해수면온도가 정상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낮아져 올 가을철에 라니냐 상태로 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엘니뇨 감시구역 해수면온도 편차 : 2016년 6월 0.0℃, 7월 10일~16일 -0.5℃
※ 엘니뇨(라니냐) 정의 : 엘니뇨 감시구역(열대 태평양 Nino 3.4 지역 : 5°S~5°N, 170°W~120°W)에서 5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 편차가 0.4℃이상(-0.4℃이하)으로 나타나는 달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라니냐)의 시작으로 봄

[3개월전망(2016년 8월 ~ 10월) 요약]



※ 월별 평균기온 및 강수량 평년값과 평년 비슷 범위 기준표

기간 \ 요소	8월		9월		10월	
	평년	평년 비슷 범위	평년	평년 비슷 범위	평년	평년 비슷 범위
평균기온	24.9°C	-0.6 ~ 0.6°C	20.1°C	-0.4 ~ 0.4°C	14.2°C	-0.5 ~ 0.5°C
강수량	235.3mm	85 ~ 115%	152.2mm	75 ~ 125%	42.0mm	80 ~ 120%

※ 평년기간 : 1981년~2010년

※ 강수량 전망의 '평년 비슷' 범위는 평년기간 중 발생한 극값을 제외하고 산출되었습니다.

※ 확률예보 해석의 기준

확률(낮음(적음) : 비슷 : 높음(많음))	해설
높음(많음) 확률이 50%이상	평년보다 높음(많음)
(20:40:40)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음(많음)
비슷 확률이 50%이상	평년과 비슷
(40:30:30) (30:40:30) (30:30:40)	
(40:40:20)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음(적음)
낮음(적음) 확률이 50%이상	평년보다 낮음(적음)

【알림】

- 3개월전망은 "기상청 누리집→날씨→특보·예보→3개월 전망"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3개월전망은 2016년 8월 23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5월

- 기온은 18.7℃로 평년(17.4℃)보다 높았으며(편차 +1.3℃), 강수량은 55.4mm로 평년(88.5mm)보다 적었음(평년비 63%).
- [기온] 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계열의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었고, 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과 낮 동안의 강한 일사로 인해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음. 특히 18~20일에 중국북부와 몽골에서 고온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유입되었고, 우리나라 부근에 정체한 고압대와 낮 동안의 강한 일사로 인해 고온 현상이 나타났음.
- [강수량] 전반에는 주기적으로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으나, 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았음. 2~3일에 중국 중부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으며, 10일에는 남해안, 15~16일과 24일에는 중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으로 인해 비가 내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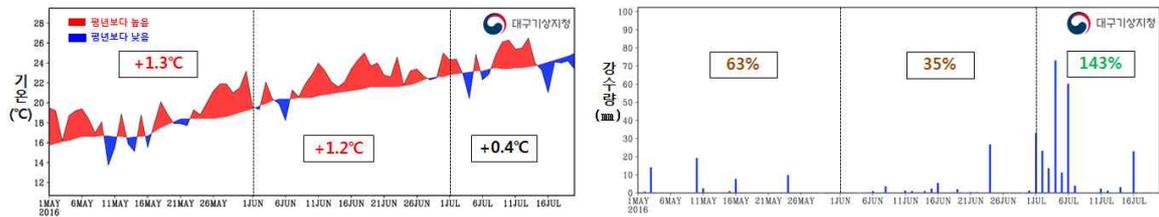
○ 6월

- 기온은 22.3℃로 평년(21.1℃)보다 높았으며(편차 +1.2℃), 강수량은 48.1mm로 평년(137.3mm)보다 적었음(평년비 35%).
- [기온]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으며, 특히 남쪽으로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과 고기압 가장자리에 자주 들면서 구름 낀 날이 많아 최저기온이 크게 상승하였음.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았으며 강한 일사까지 더해져 낮 기온이 크게 상승하여 평균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음.
- [강수량] 전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건조한 가운데 우리나라 북쪽으로 상층기압골이 자주 통과하여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자주 내렸음. 후반에는 우리나라 북쪽으로 자주 지나가는 상층기압골의 영향과 함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서로 발달하면서 저기압이 주로 우리나라 남쪽으로 지나가 강수량이 적었음. 18일에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었던 장마전선이 일시적으로 북상하여 22~24일에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었음

○ 7월 1~20일

- 기온은 24.0°C로 평년(23.6°C)과 비슷했으며(편차 +0.4°C), 강수량은 248.3mm로 평년(170.1mm)보다 많았음(평년비 143%).
- [기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따뜻하고 습윤한 공기의 유입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았으나, 16~18일에는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음.
- [강수량] 1~6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 200mm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하여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음.

- (최근 3개월, 2016.5.1~7.20) 평균기온은 21.3°C로 평년(20.3°C)보다 1.0°C 높았으며, 강수량은 351.7mm로 평년(396.1mm)대비 88%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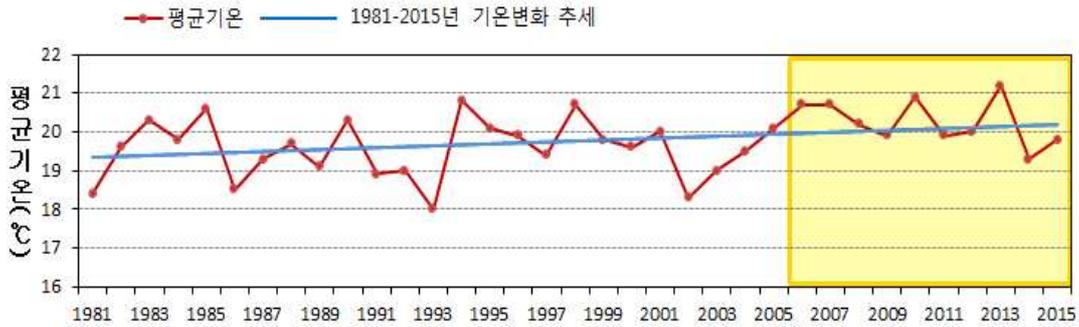
최근 3개월 평균기온(좌)과 강수량(우)의 일변화(2016.5.1~7.20)

첨부 2

최근 10년간의 대구·경북 기후 특성(8월~10월)

○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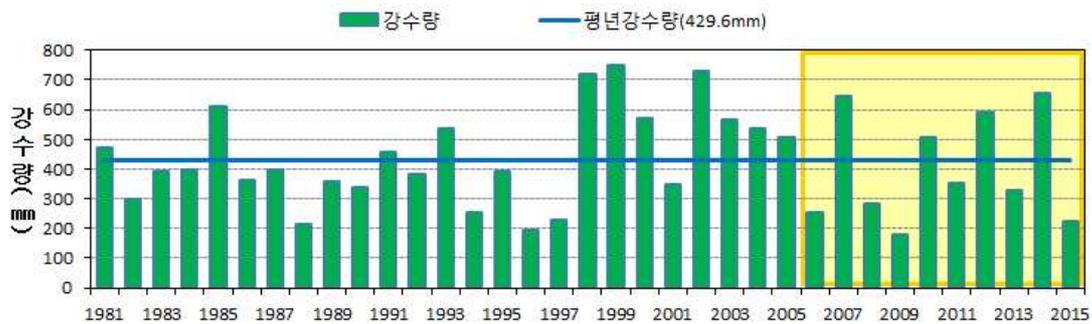
- 최근 10년(2006년~2015년) 평균기온은 20.3℃로 평년(19.7℃)보다 0.6℃ 높았음.



연도별(1981년~2015년) 평균기온(8월~10월)

○ 강수량

- 최근 10년(2006년~2015년) 강수량은 401.5mm로 평년(429.6mm)대비 93%를 기록하였음.



연도별(1981년~2015년) 강수량(8월~10월)

○ 월별 최근 10년 평균 기후값

기후 요소	단위	8월	9월	10월
평균기온(평년편차)	℃	25.4(+0.5)	20.5(+0.4)	14.9(+0.7)
평균 최고 / 최저 기온	℃	30.2 / 21.7	25.9 / 16.1	21.5 / 9.5
강수량 / 강수일수	mm / 일	210.8 / 14.5	136.1 / 9.7	54.6 / 5.7
일조시간	시간	163.4	162.1	203.7
폭염 일수(일최고기온 33℃ 이상)	일	8.5	0.4	0.0
열대야 일수(밤최저기온 25℃ 이상)	일	3.5	0.1	0.0
일강수량 80mm 이상 일수	일	0.3	0.3	0.1
일교차 10℃ 이상 일수	일	10.3	14.6	21.1

※ 기온·강수량은 9개 지점(대구, 포항,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구미, 영천) 평균임

※ 최근 10년 기간 : 2006년~2015년 / 평년기간 : 1981년~2010년

○ 고온 현상

－ (2015년 8월 1일~7일)

- 대부분 지역에서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자주 나타났으며, 특히, 강원도 영동 및 경상도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운 날이 이어졌음
(일평균기온(°C) [8월 극값] : 4일 영천 30.4[4위], 6일 의성 30.3[1위], 상주 29.7[2위], 7일 구미 30.3 [1위]/일최고기온(°C) [8월 극값] : 1일 영천 37.5[3위], 4일 영덕 38.2[1위], 6일 상주 36.6[1위], 7일 의성 38.7[1위], 안동 37.2[2위], 영주 37.1[2위])
- 덥고 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과 고온다습한 남서기류의 유입 및 강한 일사로 기온이 크게 올랐음

－ (2013년 8월)

-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자주 나타나 평균기온 및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편차(°C) : 평균기온 +2.4, 평균 최고기온 +3.3)
-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었음
- 가축이 폐사하고, 천여 명의 온열질환자 중 14명이 사망하였음

－ (2011년 9월 12일~17일)

- 고온현상이 나타났음(일최고기온(°C) [9월 중순 극값 1위] : 15일 대구 34.2, 영천 33.0)
-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의 온난 습윤한 공기유입과 강한 일사의 영향을 받았음
- 전력수급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순환정전이 실시되어, 정전으로 공장 가동 중단, 승강기 관련 사고와 교통대란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0년 8월 1일~9월 20일)

- 고온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어, 평균기온과 평균 최저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편차(°C) : 평균기온 +2.2, 평균 최저기온 +2.6)
- 평년보다 발달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음
-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으나, 해수욕장 및 여름상품의 매출은 호황을 이루었음

－ (2008년 9월 7일~24일)

- 폭염이 나타났으며, 평균기온과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편차(°C) : 평균기온 +2.3, 평균 최고기온 +2.8)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았음
- 쌀, 배 등 아열대성 작물은 유례없는 풍작이었으나, 농작물 값이 하락 하여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6년 10월)

- 평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편차(°C) : 평균기온 +2.5)
- 동서고압대의 영향을 주로 받았음
- 높은 기온 탓에 가을 의류의 판매가 부진하고, 모기떼가 극성을 부렸음

○ 저온 현상

－ (2014년 8월)

-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았으며,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다섯 번째로 낮았음(평균 최고기온 편차(°C) : -2.3[1위 1980년 -4.5])
- 전반에는 두 차례의 태풍 영향, 후반에는 상공에 찬 공기가 유입된 가운데 저기압의 영향을 받았음

－ (2006년 9월 5일~18일)

-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낮았음
(편차(°C) : 평균 최고기온 -3.0[1위 2000년 -3.5])
- 상층 한기의 유입으로 쌀쌀한 날이 지속되었음

○ 태풍과 많은 비

－ (2014년 10월 20일~22일)

-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10월 일강수량 극값을 기록한 곳도 있었음
(일강수량(mm) [10월 극값 1위] : 21일 안동 63.5, 상주 78.8, 봉화 59.0, 영주 101.0, 문경 94.0)
- 우리나라 북서쪽과 일본 남쪽에 위치한 성질이 다른 두 고기압 사이에 형성된 수렴대와 중국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을 받았음

－ (2014년 10월 12일~13일)

- 12~13일에 걸쳐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과 동해안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태풍 전면의 난기 유입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음
- 제19호 태풍 '봉퐁'이 일본큐슈 남부에 상륙하여 일본열도를 따라 빠져 나가면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음

－ (2014년 9월 23일~24일)

-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많은 비가 내렸음
(일강수량(mm) [9월 극값] : 24일 영주 107.5[2위, 1위 1992.09.24. 176.5])
- 제16호 태풍 '풍왕'이 중국 동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후 강한 바람과 함께 다량의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었음

－ (2014년 8월)

-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자주 내렸으며, 강수일수가 1973년 이래 가장 많았음
(8월 강수일수(일) : 20.0/일강수량(mm) [8월 극값] : 25일 상주 90.1[5위])
- 중순부터 연해주 부근에 상층 기압능이 발달하여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였고,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다습한 공기가 수렴되었음

－ (2013년 10월 8일)

- 제주도와 경상도지방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음
(일강수량(mm) : 포항 115.5, 울진 102.5)
- 1998년 이후 처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10월 태풍으로 제24호 태풍 '다나스'가 대한해협을 통과하였음
- 경상도 동해안 인근 지역에 농작물 침수 및 비닐하우스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2년 8월~9월)**

-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음(최대순간풍속(㎞/h) [8월 극값] : 28일 의성 17.1[1위]/누적강수량(mm) : 8월 27~30일 문경 124.8, 영주 102.0, 9월 15~17일 포항 264.0, 구미 251.5 등)
- 제15호 태풍 '볼라벤'(8월 28일)과 제14호 태풍 '덴빈'(8월 30일), 제16호 태풍 '산바'(9월 17일)의 상륙으로 3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연이어 상륙한 최초 사례였음
- 7명이 사망하고, 1조 10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1년 8월 6일~10일)**

- 전남 해안지역에 강풍이 유입되었으며,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 제9호 태풍 '무이파'가 서해로 북상하였음
- 방파제·선착장 등 어항시설에 피해가 컸으며 1명이 사망하였고, 주택 침수 등 2천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0년 9월 21일)**

-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 대륙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 강한 정체전선이 형성되었음
- 추석연휴 첫날, 광화문을 포함한 도심 곳곳이 침수되고, 2명이 사망하였으며, 1만 4천여 가구가 침수되는 등 1212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0년 9월 1일~2일)**

-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관측 이래 최대순간풍속 극값을 기록한 곳이 있었음
- 제7호 태풍 '곤파스'가 서해상에 상륙하였음
- 서울 곳곳에서 가로수가 넘어지고, 전기 공급이 끊겨 지하철이 중단되어 출근대란이 발생하였으며 6명이 사망하고, 167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7년 9월 16일)**

-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음
- 제11호 태풍 '나리'가 남해안에 상륙하였음
- 16명이 사망하고, 475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6년 10월 23일)**

-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음
-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동해상에서 크게 발달하였음
- 1명이 사망하고, 주택 침수, 도로·교량 유실 등 699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